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 1017호(號) 1930년(昭和 5) 5월 27일 화요일

○ 고 시(告示)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245호(號)

1930(昭和 5)년 조선총독부고시 제74호(號)(조선국유철도 화물운송규칙[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 별표(別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1930(昭和 5)년 5월 27일 조선총독(朝鮮總督) 자작(子爵)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화물할인임률표(貨物割引賃率表) 국선(局線) 내(內) 발착(發著)의 부문[部] 라무네.¹⁾ 시트론(Citron)。사이다(cider)。탄산수(炭酸水)의 항(項) 발역란(發驛欄) 「경성(京城)」의 아래[下]에 「평양(平壤)」을 추가(追加)함.

1) 역자: 라무네는 일본에서 널리 사랑받고 있는 청량음료이다. 물에 설탕과 포도당 용액을 첨가하고, 라임이나 레몬 향을 첨가한 달콤한 탄산음료로 특정 업체의 상표가 아닌 다수의 업체에서 생산·판매되고 있는 음료이다. 시원한 맛에 독특한 모습을 한 유리병에 담긴 라무네는 여름마다 많이 찾는 음료이다. 일본 해군의 함정에서 승무원들의 기호품으로 공급하기 위해 라무네 제조기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에서 이전부터 서민에게 널리 알려졌던 것을 알 수 있다. 라무네라는 이름은 영국에서 유래된 레모네이드(lemonade)가 변한 것이며, 독특한 병의 디자인도 이때 동시에 들어온 것이다. 메이지(明治) 유신 초기에 고베(神戸) 구(舊) 거류지의 심상회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제조와 판매를 하였다. 1872년 6월 9일에는 일본인에게 처음으로 라무네 제조의 허가가 내려졌고 이후 5월4일을 ‘라무네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5년에는 일본 라무네 협회가 설립되었다.